

광주지역 학생 기초체력 해마다 나빠진다

지구력·근력·체지방 등 측정 2019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1~2등급 줄고 4~5등급 늘어

광주지역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지구력과 근력·순발력 등 기초체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데다, 비만 학생도 늘고 있어 가정은 물론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19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 초·중·고교생들의 체력평가에서 1등급과 2등급 비율은 줄어들고, 4등급과 5등급

비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력평가에서는 심폐지구력과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체지방 등을 측정한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점수대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생들의 평균 체력평가 등급비율을 보면 4~5등급이 2017년 2.9%→2018년 7.2%→2019년 8.3%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체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등급은 같은 기간 45.2%→47.5%→45.5% 등 변동이 있었지만 2016년 52.1%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생 역시 2017~2019년 사이 1~2등급 비율이 55.1%→54.3%→53.3% 등 매

년 감소하고 있었으며, 4~5등급은 8%→8.5%→9.5%로 늘어나는 등 건강 상태에 적신호를 보였다.

고등학교생의 1~2등급 비율도 43.7%→43.3%→41.8%로 감소했고, 4~5등급은 14.1%→14.3%→15.7%로 늘었다.

1~2등급은 줄고, 4~5등급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나빠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비만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인 BMI(kg/m²)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초등학교생들의 평균 BMI지수는 같은 기간 19.7→20→20.1로 늘었고, 중학생은 21.4→21.5→21.6으로 증가했다. 고등학

생도 22.4→22.5→22.7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의 경우 BMI 지수가 비만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건강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BMI지수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학생들 건강악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4개 중점과제를 실행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여름철 재해발생 예방 점검 21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영화상영관에서 북구청 직원들과 북부소방서 직원들이 여름철 재해발생을 대비해 방화셔터 작동을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1일~6월 1일 고교생 대상

전남대 진로·진학 체험박람회

전남대가 전국 고교생들에게 진로·진학 상담과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는 '2019 진로·진학 체험박람회'를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들 동안 광주캠퍼스 내 대학본부, 체육관, 용지관(컨벤션홀), 융복합문화관 등에서 개최한다.

'CNU 진로·진학 특목광장'이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남대는 전국 고교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전공 상담 및 체험, 대학생활 탐색, 진학특강, 심리검사와 자기이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자녀동반 진로·진학 탐색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채희종 기자 chae@

녹색연합 생물다양성의 날 성명 장륙습지 국가습지 지정 촉구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 (매년 5월22일)을 맞아 황룡강 장륙습지의 국가습지 지정을 촉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장륙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시민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통해 "황룡강 장륙습지는 광주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습지로 가장 중요한 공간 중의 하나"라며 "장륙습지는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장륙습지에는 조류 72종, 포유류 10종, 양서류종류 7종 등 생물 829종이 서식하고 있다"며 "또한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비롯한 삿, 새호리기, 흰목물새매 등 멸종위기종과 피라미, 점줄종개 등 한국특산 어종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4 **해질녘** 22:48 **해진** 19:34 **달집** 08:02

썩크림 바르세요
초여름 날씨 보이며 맑은 하늘 속 자외선 강하했다.

광주	맑음	12/27	보성	맑음	8/26
목포	맑음	15/26	순천	맑음	12/28
여수	맑음	15/25	영광	맑음	13/26
나주	맑음	9/27	진도	맑음	10/25
완도	맑음	14/27	전주	맑음	12/27
구례	맑음	8/29	군산	맑음	12/24
강진	맑음	10/27	남원	맑음	8/27
해남	맑음	7/26	흑산도	맑음	15/24
장성	맑음	9/27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0.5~1.0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0~1.5	남서~서	1.0~1.5

◇ 생활지수

- ☀️ 관심
- ☀️ 식중독
- ☀️ 매우 높음
- ☀️ 자외선
- ☀️ 보통
- ☀️ 미세먼지

◇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간	시간
목포	09:40	04:33
	21:36	16:24
여수	05:09	11:01
	16:57	23:41

◇ 주간 날씨

날짜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날씨	☀️	☀️	☀️	☀️	☁️	☀️	☀️
기온	14/29	15/31	16/31	17/28	17/25	16/26	16/27

민감청 청장 "침착 대응"…대림동 여경 논란 일축

여경 모임 "혐오 멈춰달라"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수장인 민감청 경찰청장이 "침착하고 지적이었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여경들도 '여경 혐오'로 번지는 논란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민감청 청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남경, 여경 할 것 없이 나무랄 데 없이 침착하게 조치

를 했다"며 "그런 침착하고 지적인 현장 경찰 대응에 대해서 전 경찰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경들로 구성된 경찰 내 학습모임 '경찰전선연구회'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한 여성 혐오, 여성 경찰에 대한 비하적 댓글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라며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모욕을 받아도 무방한 존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오늘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오는 2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일명 '대포차'가 단속 대상이다.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

이 적발 대상이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이 6682억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226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5000여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할 경우 변호판을 때임시 보관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학교밖 자살 예방에 주력

전남교육청 학생자살예방 대책 홍보 강화하고 유해 정보 차단 위기지원 종합센터 구축도 검토

전남도교육청은 "청소년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 전남 지방경찰청과 협의회를 구성해 '전남학생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0만 명당 학생자살률은 전남이 6.6명으로 대구(7.8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청소년 자살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데다, 가정이나 아파트 옥상 등 장소 역시 학교 밖으로 넓어지면서 교내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행사, 자살예방 현수막·포스터 보급, 민·관 합동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상 유해정보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 및 배움터 지킴이들의 유해환경 점검·순찰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의 협력을 통한 SNS 자살유해 정보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생명존중 전문강사 통합 운영과 24시간 상담창구 개설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위기상황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컨터뷰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기지원 종합센터' 구축도 검토 중이다.

김성애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학교 현장의 자살예방 활동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해상·항공·화재,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K, SGI서울보증, AXA AXA, AIG, NH농협손해보험